7. 계율

만해 스님의 주장 그 이유 곱씹어야

노동 않는 승려 비판… 인권회복은 생산에서 비롯
승니 결혼 허용… 불교 미래 가꿔갈 방책으로 제안

만해 스님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 천시 받았던 승려의 인권을 개선하고 불교를 새롭게 건설하는 방법으로 노동을 제시했으며, 불교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결혼 허용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선불교유신론>은 계율과 관련해 두 가지 항목에 걸쳐서 논한다. 하나는 승려의 인권회복은 생산에서 비롯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불교의 장래를 위해서 승니의 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제안은 만해 스님 당대는 물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전혀 다른 대접을 받는다. 두 가지 문제 모두 오늘 우리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고개를 갸웃거릴 만하다.

우선 승려의 노동. 그것은 선종의 전통이고 오히려 당연시되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만해 스님은 생산노동을 강조하는 것일까. 그 시절 승려는 생산노동을 전혀 하지 않았단 말인가? 답은 “그렇다”이다. 만해 스님은 당시 승려의 생활방식으로 기취(欺取, 상대를 교묘하게 속여서 생활방도를 취함)와 개걸(丐乞, 구걸)을 들고 있다. 대부분이 생산노동과는 전혀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만해 스님은 조선조 500년 동안 천시 받았던 승려의 인권을 개선하고 불교를 새롭게 건설하는 방법으로 노동을 제시했다. 다만 만해 스님의 이 지적에서 당시 조선불교는 승려의 생산노동을 당연시하던 선종전통에서 좀 벗어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둘째, 승니(僧尼)의 결혼 허용, 우리는 그것을 간단히 대처(帶妻)라고 부른다. 만해 스님은 이 부분에 대단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중추원과 통감부에 건의서를 내기까지 하고 있으니 그 열의를 짐작할 만하다. 스스로도 승려의 결혼 허용을 불교를 부흥시키기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대책이라고 할 정도이다.

이 두 가지는 오늘날 우리 시각에서 보면 전혀 다른 대접을 받는다. 승려가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一日不作 一日不食)”이라는 말이 대중화돼 사회에서 통용될 정도이니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승려의 결혼 허용, 곧 대처(帶妻)에 관해서는 정반대의 시선이 일반적이다.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자 애국지사로 알려진 만해 스님이지만 승가 내에서는 “결혼했잖아”라는 한 마디로 평가될 정도이다. 국권상실기에는 결혼 허용을 주장하는 승려도 많았고, 또 실제 결혼한 승려가 다수를 형성했던 것 같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일반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정말 이상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진다. “승려가 무슨 결혼을 해?” “승려가 결혼하는 것은 일본불교에서나 하는 것이잖아.” 이게 우리의 시각이다. 승려의 결혼은 불교전통에도 어긋나고 또 일본화된 불교의 전형인 것처럼 바라보는 것이다.

그런데 한 세기 전 만해 스님은 승려의 결혼 허용을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스스로 들고 있는 주된 이유는 포교와 교화에 해롭다는 것이다. 그런데 왠지 우리의 시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만 비추어진다. 이에 대해 심재관 선생은 “이미 100여 년 과정 속에서 형성된 ‘주체화’ 된 전통의 목소리(‘청정비구는 한국불교의 특징이다’)”와 “소수의 근대적 타자(일본불교)로 간주되어 거세된 대처식육(帶妻食肉)”으로 대비시키고 있다.

곧 우리가 선택한 전통에 의해 배제되었던 또 다른 선택을 혐오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것이 <유신론> 이후 100년 동안 우리가 만들어왔던 전통적이고 습관화된 인식이라면, 이제는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때도 되지 않았을까?

필자가 볼 때 적어도 ‘대처(帶妻)’를 둘러싼 만해 스님의 주장은 ‘대처’라는 그 한마디에 매몰돼 버렸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대처’가 나쁜 것으로 이미지가 고정된 상태에서는 그것을 주장하는 의도가 어떤 것이든 용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신론>에서의 ‘대처’ 곧 ‘결혼허용 주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것이 ‘유신(維新)’이라는 대전제 아래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유신은 깨뜨려야 할 구습(舊習)과 새롭게 만드는 미래를 전제로 주장된다.

만해 스님에게 있어 승려의 생산노동 장려는 개걸(丐乞)하고 기취(欺取)하는 구습의 타파를 통해서 새롭게 만드는 미래였다. 동시에 만해 스님에게 있어서 ‘승니의 결혼허용’은 교세를 보존하고 불교를 흥성하게 하는 것으로, 시대에 뒤쳐진 조선불교라는 깨뜨려야 할 구습을 대신할 새로운 미래를 위한 방책이었을 것이다. 그에게는 결혼의 허용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결혼의 허용을 통해서 얻어지는 불교 교세의 보존과 흥성이라는 미래가 더 중요했던 것이다.

만해 스님은 승려의 결혼 허용 문제를 거론하면서 서두에 “불교를 계율에서 구하는 것은 참으로 용을 한 잔의 물에서 낚고, 호랑이를 개미집에서 찾는 태도”라고 전제하고 있다. 만해 스님에게는, 계율의 열고 닫음은 불도(佛道)를 성취하는 징검다리이고, 그 징검다리가 성취해야 할 불도 그것은 아니라는 명료한 의식이 전제돼 있다.

오늘 우리가 <유신론>을 돌이켜 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 역시 마찬가지이다. 만해 스님이 ‘무엇’을 주장했는가도 중요하겠지만 ‘왜’ 주장했나 하는 것도 차근차근 곱씹어 보아야 할 때이다. 역사는 온고지신 아니겠는가.

석길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논설로 보는 만해 사상

펜으로 개혁 앞장 선 선구자

불교사상가이자 독립운동가로서의 모습 담겨

만해 스님은 전방위적 · 전인적 삶을 산 인물이다.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3 · 1 독립운동을 주도한 독립운동가이자, 한국 현대 시문학의 큰 자랑인 <님의 침묵>을 쓴 시인이며, 불교의 유신을 주창한 불교사상가이고, 자유와 평등을 높이 외치고 실천한 사회사상가이다. 이러한 스님의 사상과 정신은 스님의 각종 논설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조선불교유신론>을 비롯한 불교관련 논설과 <조선독립의 서> 등 우국(憂國)논설 등이 그것이다.

당시 스님의 주장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점이 많다. 이는 스님의 선각적 안목이 어떠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스님의 논설은 시인으로서의 만해만이 아니라 불교사상가 만해, 독립운동가 만해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정 · 교를 분립하라

만해 스님은 1931년 <불교(佛敎)> 87호의 ‘정 · 교를 분립하라’는 논설에서 조선 불교가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사찰령(寺刹令)으로 특수한 간섭을 받게 되며 정책의 희생양이 됨을 개탄했다.

만해 스님은 사찰령과 사찰령 시행규칙의 전문을 기제하며 조선 불교도의 맹성을 촉구했다.

만해 스님은 “사찰령은 정 · 교분립의 원리에 위반됨은 물론 각국의 기정한 헌법 정신에 배치되는 것이며, 조선 내에서도 조선 불교에만 한해 있는 특수한 현상”이라며 “그리하여 조선 불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 의혹을 받게 되고 치욕을 느끼게 된다”고 주장했다.

#불교청년운동을 부활하라

만해 스님은 “청년 없는 사회와 국가가 진보하고 발흥 할 수 없다”며 일대 전환기에 접어든 조선 불교에서 청년의 역할을 중요시 여겼다. 스님은 1938년 <불교> 新 제10집 ‘불교청년운동을 부활하라’의 논설에서 “지금부터 조선 불교는 일대 전환기에 들어 있다. 무통제에서 통제로, 비규율에서 규율로, 그보다도 자립이냐 예속이냐 하는 중대한 분기점에 방황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이런 중대한 비상시기에 불자는 누구든지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런 때에 당당한 불교청년으로 어찌 그 책임을 느끼지 아니 하리오”라고 역설했다.

해외포교와 역경(譯經)

만해 스님은 ‘조선 불교의 해외발전을 전망함(<불교> 98호 1931.8.1)’과 ‘역경(譯經)의 급무(<불교> 新 제3집 1937. 5. 1.)’의 논설에서 해외포교와 역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스님은 “현재에 있어 세계 각국의 종교는 물론 불교에 있어서도 조선 불교를 제한 외에는 모두 해외의 전포를 위해 막대한 심력과 금전을 들인다”며 “조선 불교는 금전과 인물의 문제로 해외 진전은 돈진(頓進)할 수 없고 점진의 도(道)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만해 스님은 만주 · 중국 본부 · 하와이 · 미주 · 인도 기타 열국의 순서로 포교활동을 제안하면서 “조선 불교의 현상에 있어 해외포교가 일종의 공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님은 역경 사업에 대해 “조선 불교의 유신 이래 교육, 포교, 기타 모든 방면으로 다소의 진보가 있는데, 역경에 있어서는 요요무문(寥寥無聞)”이라고 지적했다. 스님은 역경 사업은 조선의 전 불교가 일치 협력해 대규모로 하지 않으면 원만히 진행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만해 스님의 사상과 정신은 스님의 문학 외적인 자료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만해 기념관에는 만해 스님의 <조선불교유신론>의 초간본과 <불교대전> <불교(佛敎)> 등이 전시돼있다.

조선독립의 서(1919)

‘자유는 만물의 생명이요, 평화는 인생의 행복이다…’로 시작되는 ‘조선독립의 서’는 만해 스님이 3 · 1독립만세운동의 주동적 인물로 피체 · 투옥됐던 1919년 당시 일본인 검사의 심문에 대한 답변을 대신하기 위해서 옥중에서 기초한 것이다.

‘조선독립의 서’는 만해 스님의 정연한 논리와 조리 있고 해박한 이론, 시대와 민족을 초월한 스님의 탁월한 사상과 고결한 식견을 담고 있다. ‘조선독립의 서’는 스님의 담당 일본인 검사로 하여금 예우(禮遇)와 경의를 불러 일으키게 해 당시 일본인 검사 “이론은 정당하나 본국 정부의 방침이 변치 않으므로 어쩔 수 없다”라고 언명해 유명해지기도 했다.

이나은 기자

글 싣는 순서……

1. 만해와 ‘조선불교유신론’
2. 수행
3. 포교
4. 종단 및 사찰운영
5. 신행
6. 교육
7. 계율
8. 만해와 오늘의 불교
9. 소설-만해 스님

제4회 文武大王해상용왕대제
(태평양전쟁 희생자 합동 위령제)

일자	지역	교통편	일 정	일자	지역	교통편	일 정
1일째	부 산	부관훼리	제 4회 해상 문무대왕 용왕대제 (태평양전쟁 희생자 합동위령제)	3일째	벳 부 우사신궁 시모노세키	전용버스	– 가마토 지옥. 유노하나. 우사신궁. 관문대교 관광 – 시모노세키 항 이동 및 승선(석식 공양 후) – 선내 레크레이션 및 자유시간
2일째	시모노세키 후쿠오카 유후인 벳 부	전용버스	– 후쿠오카 태재부 천만궁 관광 – 난조인(41M 세계최대의 청동 와불상) 남장원 참배 및 관광 – 3대 온천수 및 긴린코 관광, 호텔휴식	4일째	부 산	부관훼리	– 선내 조식후 하선 및 입국수속 (부산항 아침 8시 도착)

◆ 일자 : 2010. 10. 11 ~ 2010. 10. 14 (3박 4일)
◆ 코스 : 〈부관훼리〉 후쿠오카, 유후인, 벳부 관광 ◆ 출발 : 부산 국제여객터미널 2층 17시 30분 집결
◆ 주 최 : 사) 대일항쟁기 희생자 전국연합회 ◆ 주 관 : 종)한국불교재단 대제봉행 추진위원회 ☎ 011-801-8197 (사무국)
◆ 전 화 : 055)338-0050, 여권사본 팩스 055)328-2762. 02)722-4622
◆ 협 찬 : 재) 세계불교 법왕청 평화재단. 불교 통합종단 협의회. 종) 대한불교 삼보조계종 전종도. 사) 한국청소년 보호육성회.

출발예정일	2010년 10월 11일 ~ 2010년 10월 14일	출발예정일	150 ~ 200여명 이상
단 체 명	大韓佛教三寶曹界宗	상 품 원 가	₩ 499,000
포 함 사 항	크루즈, 항만세, 유류할증료, 여행자보험, 관광지입장료, 식사, 차량, 기사 & 가이드 팁 387		
주 최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101번지 서울재향군인회 빌딩 602호 02)766-9990 / FAX 02)722-4622		

깨침의 교당
국제승가대학 제3기 수강생모집
(교육과학부 김해대학 평생교육원)

◆ 학 과 : 불교철학
◆ 학 부 : 3부
일반부 – 1.2학기 (주 · 야) 교육기간 : 1년
전문부 – 1.2학기 (주 · 야) 자격반 교육기간 : 1년
승가부 – 1.2학기 (주 · 야) 자격반 교육기간 : 1년
◆ 강 의 : 제 10 강 – 200 교시
◆ 학 비 : 전화문의
◆ 입학식 : 제 3기생 [2010년 9월 30일 (목) 주간 14시. 야간 19시]

– 목 차 –
1학기 ·············· 불교학. 의식학. 심리학 특강
2학기 ·············· 법회학. 경전학. 심리학 특강
※ 불교철학 교육 졸업증 수료 및 심리상담사 2급 자격증 취득

승가 불자여 !
승가대학 입학을 환영합니다.
수행 보리자여 우리함께 정진하여 풍요한 불교의 황금 알을 찾읍시다.

국제불교 승가대학
한국불교문화대학원
농 협 301-0026-704771 (예금주 불교문화 대학원)
학무처 ☏ 055) 338-0050 (학무담당 011-801-8197)